

영어 차용어에 미치는 음운외적인 요소

이상도 · 이영순

(부산대학교)

Lee Sang-do & Lee Young-Sun. (2007) Extra-phonological factors on English Loanwords. *Modern English Education*, 8(2), 180-197.

Due to language contacts among countries, loanwords have essentially influenced the native phonology and lexicon. Until now, the studies on the loanwords have mainly focused on language theories like Optimality Theory and Correspondence Theory, and their constraints and phonological rules. There is, however, a general awareness that loanwords are influenced by some extraphonological facto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ive some examples in detail. First, based on spelling information, the native speaker reads the source language radio[ˌɹeɪdiə] for [ˈrædiə]. Second, despite the fact that in nonloanword phonology deletion is used as a default repair strategy while epenthesis is involved in loanword phonology, the loanword output is against this under auditory information. Third, the importation channel of loanwords, whether via Japanese or not, can be important to understand the free variation [l] ~ [ll] ~ [r]. Finally, it is necessary to mention the media impact on loanwords.

Keywords: [loanwords/orthography/foreign word transcription/media impact/importation channel/차용어/정서법/외래어 표기법/언론의 영향/수입경로]

1. 서론

국가 간의 접촉이 많아지고, 그 경계가 좁아짐에 따라 한 언어는 다른 언어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체계가 다른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 동화된 단어를 차용어(loanword)라 하며, 차용 과정에서 문법 전반에 걸친 언어변화를 겪게 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음운변화이다. 대부분의 차용된 어휘들은

2. 선행 연구

기존의 차용어에 관한 연구¹⁾들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음운이론의 발달에 따른 차용어의 분석 방법이다(김태미, 2002; Kenstowicz, 2003). 둘째, 여전히 논쟁이 치열한 차용어의 입력과 인지에 관한 문제로, 차용어 과정에서 모국어 화자는 근원어를 음소로 인식하는지 혹은 음성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른 음운적 접근법(LaCharité & Paradis, 2005)과 음성적 접근법(Oh Mira, 2005; Peperkamp & Dupoux, 2003; Vendelin & Peperkamp, 2004)으로 양분된다. 셋째, 어말 자음군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어의 음소 배열론에 따른 수정 전략으로 흔히 나타나는 모음 [ʉ, ɪ, i] 삽입현상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방법의 시도이다(김태미, 2002). 넷째, 차용어 음운론의 도입문제이다(Lee Juhee, 2003; Silverman, 1992; Yip, 1993). 즉 근원어인 영어가 차용 언어인 한국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과연 모국어 음운론과는 별개의 차용어 음운론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별개의 영어 차용어 음운론을 인정한다면 영어 외의 많은 언어의 차용어를 연구할 때마다 별개의 차용어 음운론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에 차용어 연구는 단순한 청각적인 입력자료만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며, 차용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음운외적인 현상을 중심으로 한 차용어 연구에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cut, type, net 등은 모음 삽입의 유·무에 따라 용인된 발음이 두 가지로 그 의미 또한 달라진다. 이를 크게 음운현상과 음운외적인 현상으로 구분 설명할 수 있다. 즉 음운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구분식(1998)은 제약의 재 등급화로 광성수(2001)는 NoCoda 제약으로 설명, 학자마다 다른 제약과 제약의 등급을 이용하므로 일관된 설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3) /k^hət/ → [k^hətʰi] ‘컷트’ vs /k^hət/ → [k^hət] ‘컷’
 a. Max-IO >> CodaCon >> *InterVocalic VI >>
 Ident-IO(asp) >> Dep-IO
 b. Max-IO >> Dep-IO >> CodaCon >>

1) Kenstowicz(2003)에 따르면 차용어 연구에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차용어를 음운규칙과 제약으로 설명하는 방법 둘째, 근원어(donor language)가 차용언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소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요소로 이러한 수정과정(modification)이 범 언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를 성인의 보편문법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InterVocalic VI>> Ident-IO(asp) (구본석 1998)

(4) /k^hət/ → [k^hət^hi] ‘컷트’ vs /k^hət/ → [k^hət] ‘컷’

a. NoComp, Sp >> CodaCon >> Max-IO >>

Ident-IO >> Son >> NoCoda >> Dep-IO

b. NoComp, Sp >> CodaCon >> Max-IO >>

Ident-IO >> Son >> Dep-IO (곽성수 2001)

구본석(1998)은 동일한 입력형태가 출력형태에서 달라지는 현상을 제약동일등급 (constraint tie)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즉 [cuti]로 모음이 삽입되는 경우는 Dep-IO에 위배되지만, [cut]으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CodaCon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두 제약을 동일등급제약으로 분류하여, 재 등급화시킨다. 즉 CodaCon이 상위제약인 경우와 Dep-IO이 상위제약인 경우 각각 컷트와 컷으로 발음된다. 또한 곽성수(2001)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NoCoda제약을 도입한다. 음절말에 어떤 자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NoCoda제약이 설정되면 ‘컷트’로 발음되고 그렇지 않으면 ‘컷’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이를 음운외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 즉 중간언어 (interlanguage) 환경에서는 [cut]의 발음을 선호하는 반면에, 차용어의 환경에서는 [cuti]로 발음을 한다. 또한 컷은 영화촬영에서 감독이 사용하는 표현인 반면에, 컷트는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화용적인 방법이다.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næpk^hin]과 [næpik^hin], [hip]과 [hipi]의 두 가지 용인된 발음은 모음의 유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지만, 어떠한 의미차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현상 또한 최적성 이론에서 유시현(2001)은 *CODA 제약으로 설명하여 앞에서 언급한 cut과 비슷한 현상이지만 다시 별개의 제약과 제약의 등급을 도입한다. 그러나 이를 음운외적인 현상인 차용어 화자의 연령대로 설명할 수 있다. 최근 연령대가 젊을수록 모음의 삽입 경향이 줄어든다. 이를 반영하듯 영어지식이 많아지고, 인터넷을 통한 즉각적인 영어의 차용으로 최근 경제, 컴퓨터와 통신 관련 신조어들은 대부분이 모음 삽입이 일어나지 않는다(internet, dot, laptop, inkjet, stock, epron). 그 외에도 안상철 & 최인철(2006)은 이를 차용어의 도입경로로 설명한다. 즉 일본어를 통해 간접차용된 영어는 무조건 모음을 삽입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때 모음이 삽입되지 않는 발음과 같이 경쟁적으로 쓰이게 되어 다른 의미를 지니므로 이는 사회언어학적 요소의 고려 대상이어야 한다.

3. 음운외적인 현상

영어 차용어는 변화한다. 1900년대의 차용어는 대체로 영어 - 일어 - 한국어의 간접차용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차용어 보다 발음이 근원어에 가깝다는 사실과 1900년대와 2000년대의 차용어가 다른 이유를 외래어 표기법과 차용어의 경로, 시기과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단순히 음운현상과 음운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5) 영어	한국어(1937년)	한국어(2002년)
glass	구라스(동아일보1796)	글라스
copy	꼴피	카피
coffee	고히(중앙일보1711)	커피
irony	아이로니(동4004,중1762)	아이러니
knock	낙(눅크)	노크
mosaic	모사익(크)(동4224)	모자이크
network	네트웁	네트워크
necktie	넥타이	넥타이

모던조선외래어사전(1937)과 외래어 표기용례집(2002)에서 비교해 본 것처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발음의 형태도 변화했다. 우선 꼴피, 낙, 네트웁, 넥타이 등이 카피, 노크, 네트워크와 넥타이로 변한 현상은 외래어 표기법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다.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 제3항에 따르면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쓸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ㅍ, ㅋ과 같은 받침에 수정이 가해진다. 또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소개된 신조어들은 그 귀화의 정도에 있어 아직 모국어에 동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영어의 발음에 가깝게 발음하려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세대 간의 발음의 격차를 드러내게 되는데, 젊은 세대들은 영어 차용어를 원래의 목표언어인 영어 발음에 가깝게 발음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법은 차용언어 화자가 차용어의 청각적인 입력이 전제된다.

다음에서 차용어의 음운외적인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3.1 정서법

정서법이 차용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주어진 철자 정보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철자대로 발음을 하거나, 묵음(silent phone)일 때도 발음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Oh Mira, 2005; Peperkamp & Dupoux, 2003; Iverson, 2005; Smith, 2006; Vendelin & Peperkamp, 2005).

(6) a. boer	[bur]	[boer]
	(Peperkamp & Dupoux 2003)	
b. coffee [k ^h ɔfi]	[k ^h ɔp ^h i]	[k ^h əp ^h i]
copy [k ^h api]	[k ^h ɔp ^h i]	[k ^h api]
lobby [labi]	[robi]	(*[rabi])
radio [ɹeɪdiɔ]	[radio]	(*[rɛɪdiɔ])
swordfish [sɔɹdɪfɪʃ]	[siwədip ^h iʃwi]	(*[sədip ^h iʃwi])
	(Iverson 2005)	
c. cul-de-sac	[kytsak]	[kɹɪdəsæk]
	(Vendelin & Peperkmap 2005)	

정서법과 관련해서 (6a)의 아프리칸스어(Afrikaans)에서의 불어 차용어 boer는 원래 근원어의 발음이 [bur]이지만 정서법의 영향으로 [boer]로 발음될 수 있다. Iverson(2005) 또한 정서법이 영어 차용어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차용어 lobby[labi]와 radio[ɹeɪdiɔ]가 음성적으로 유사한 *[rabi]나 *[rɛɪdiɔ]가 아니라 [robi]나 [radio]로 발음되는 것은 표기법의 영향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또한 (6b)의 swordfish에서처럼 [w]는 묵음임에도 불구하고 철자에 영향을 받아서 발음을 하게된다. 이외에도 Vendelin & Peperkamp(2005)에 의하면 읽기차용(reading adaptation)이 차용어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마치 차용어를 차용언어처럼 발음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정서법의 영향을 차지한다. (6c)에서 불어 cul-de-sac의 근원어의 발음은 [kytsak]이지만 영어에 차용되면서 정서법의 영향으로 [kɹɪdəsæk]으로 발음되었다.

Peperkamp & Dupoux(2003)에 의하면 차용어 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는 정서법과 역 차용(older loan)²⁾이다. 또한 문자차용이거나, 차용어화자가 근원어의

2) 차용언어 화자는 기존의 차용어 의미와 차별하여 쓰려고 할 경우에 두 번 차용하게 되는 경우를 역 차용이라 한다. 일본어에서 영어 차용어인 strike는 [sutoraiki]와 [sutoraiku]로 구별되는데 전자와 달리 후자는 야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철자를 아는 경우에 정서법은 차용어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서법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자. Oh Mira(2005)는 차용어에서 음소 /l/이 모음 사이에서 [ll] 혹은 [r]로 발음이 가능한 경우에 철자 정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글(Google)에서 조사했다. 철자가 <I>인 경우에는 [ll]로 발음할 확률이 [r]로 발음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지만, 철자가 <ll>인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우가 [ll]로 발음한다는 사실을 볼 때, 철자 정보가 영어 [ll]의 가능한 발음 [ll]과 [r]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melon은 [meron]~[mellon]으로 발음이 가능하지만 (Carnegie) Mellon은 *[meron]이 아닌 [mellon]으로만 발음되는 사실은 철자 <ll>의 정보로 인한 것이다.

차용어는 모국어 문법과 음소목록계약 자체에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모국어 문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용어 보편적인 규칙(예를 들어 삽입의 수정전략)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 Smith(2006)는 차용어 연구가 근원어(source language)에서 차용어(borrowing language)인 Ls -to -Lb가 아니라 가정된 차용언어 언어표시에서 차용어로서의 pLs - to - Lb 연구여야 한다. 가정된 차용언어 언어표시 pLs(posited Ls representation)는 모국어 화자의 음운체계의 일부분으로 차용언어 형태에 관한 차용어 화자가 가지는 모든 정보의 보고로 기능한다. 또한 pL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지각적인 정보, 철자정보, 근원어의 문법지식,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실이 있다.

(7) 가정된 차용 언어 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소

- 지각적인 정보
- 철자정보 → 가정된 차용언어 언어표시
- 근원어의 문법지식
-³⁾

또한 이러한 pLs의 설정은 지각적인 정보, 철자정보, 근원어의 문법지식등과 같이 차용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관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Smith(2006)에서 일본어 화자는 음성차용일 경우에 청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은 자음의 경우에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차용어 화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철자정보는 자음군, 비 축약모음 (non-reduced forms of vowel)과 발음등에 관

³⁾ Smith(2006)에 의하면 pL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기타요소에는 화자의 입술모양과 턱의 높이와 같은 시각적 자료와 이중언어 화자의 유창성 정도이다.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음성차용일 경우와 문자차용일 경우의 차용어 형태가 [pok.ke]와 [po.ket.to]로 달라진다.

3.2 도입 경로

영어 차용어 음운변화를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차용어가 언제,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는 시기와 경로의 파악이다. 차용어를 분류하는 방법 중 하나는 Peperkamp(2005)에 의한 통합차용(integrated loanwords)과 온라인 차용(on-line adaptations)이다. 통합차용이란 차용 언어의 어휘목록에 있는 단어로 대부분의 연구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차용어를 사용하는 단일 언어 화자는 근원어를 한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으므로 그 기저형태가 표면형태와 다르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온라인 차용은 즉각적인(here and now) 차용이다. 이외에도 차용어는 도입경로에 따라 직접차용과 간접차용으로 도입방법에 따라 음성차용과 문자차용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의 대부분의 영어 차용어는 일본을 경유한 간접차용과 문자차용인 반면에 현재는 직접차용과 음성차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일본의 음절배열 특히 모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영어의 일본식 발음이 우리말에 그대로 들어온 것들로 약간의 발음변화가 일어난 예들이다

(8) concrete	콘쿠리토	공굴, 공구리
collar	가라	가라
slippers	스리빠	쓰레빠
dozen	다수	타스, 다스
double	다부루	따불
robot	로보트	로보트
inflation	인푸레이손	인푸레
television	텔레비전	텔레비
sentimental	센치멘타루	센치

(김봉모 1998)

이런 일본식 영어발음이 현재에도 남아있는 경우는 외래어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 제5항에서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를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영어 차용어 분석에서 도입경로와 관련해 언급해야 할 중요한 현상은 하나의 근원어에 두 가지 적형 형태의 발음이 가능한 경우를 자유변이(free variation)이다. 이는 특히 유음이 [l]~[ll]~[r]에서 많이 발생한다. 한국에서 유음 [l]과 [r]은 음절에서의 위치에 따라 그 음가가 정해진다. 대체적으로 어두에서는 [r], 어말에서는 [l]이지만 어중에서는 [ll]겹자음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9) tulip	[tyu.rɪp]	[tyul.lɪp]
melon	[me.rɒn]	[mel.lɒn]
glamour	[ki.ræ.mə]	[kil.læ.mə]
kilo	[k ^h i.ro]	[k ^h il.lo]
jelly	[ce.ri]	[cel.li]

'melon'	ONSET	*r]μ	*μ[l	Ident(lateral)	*Gem
me.rɒn				*!	
↔ mel.lɒn					*
me.lɒn			*!		
mel.ɒn	*!				
mer.rɒn		*!			

'melon'	ONSET	*r]μ	*μ[l	*Gem	Ident(lateral)
↔ me.rɒn					*
mel.lɒn				*!	
me.lɒn			*!		
mel.ɒn	*!				
mer.rɒn		*!			

(Lee 2003)⁴⁾

이를 Lee(2003)는 Ident(lateral)과 *Gem 제약으로 설명한다. 즉 melon이 [mellon]으

4) *r]μ: 모라의 위치에서 r는 올수 없다.
 *μ[l: 모라의 위치가 아닌 곳에 l은 올수 없다.
 *Gem: 겹자음은 허용하지 않는다.

로 발음되는 경우는 Ident(lateral)이 *Gem보다 상위제약인 반면에 [me.ron]으로 발음될 때에는 *Gem이 Ident(lateral)보다 상위제약이 된다. 그러나 이를 음운외적인 현상 즉 차용경로로 설명한 경우도 있다. 즉 [tyu.rip], [me.ron], [ki.ræ.mə], [kʰi.ro], [ce.ri]등의 [r] 발음을 일본을 경유한 간접차용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안상철, 2006).

Heo & Lee(2005)가 제시하는 더 많은 예를 살펴보자.

(10) 영어	일어	한국어		한국어
salad	[sa.ra.da]	[sa.ra.da]	-	[s'el.lə.dɥ]
flash	[φu.ra.fu]	[hu.ra.fi]	-	[pʰɥl.lɛ.fi]
plus	[p'u.ra.s'u]	[p'ɥ.ra.s'ɥ]	-	[pʰɥl.lə.s'ɥ]
balance	[ba.ran.s'u]	[pa.ran.s'ɥ]	-	[pɛl.lən.s'ɥ]
glass	[gu.ra.s'u]	[kɥ.ra.s'ɥ]	-	[kɥl.lɛ.s'ɥ]
vanilla	[ba.ni.ra]	[pa.ni.ra]	-	[pa.nil.la]

(10)에서 영어는 한국어 화자에게 두 가지 발음의 형태가 가능한데 이는 간접차용의 영향을 받은 일어와, 영어가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 Heo & Lee(2005)에 따르면 salad는 [sa.ra.da] 혹은 [s'el.lə.dɥ]로 발음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결코 * [s'ɛ.rə.dɥ] 혹은 * [sal.la.da]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를 이들 단어가 일본을 통해서 차용한 발음이기 때문이며, 그 이유로 한국어에는 영어의 [æ] 발음과 유사한 [ɛ] 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음에 가까운 [sa.ra.da]로 발음한다. 초기 차용어의 경우 모음이 근원어인 영어보다는 일본어의 모음에 보다 충실했다.

한국어뿐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에도 이러한 자유변이(free variation) 현상이 있다.

(11) 탈락/삽입의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한 차용어

a. 탈락/삽입에 따른 어두 자음군 단순화

[_ri.su.riN] <glycerine [gu.ri.se.riN]
 [_wai.fa.tʰɯ] <white shirt [ho.wai.to]

b. 어말 자음군 탈락

[dʰi.ru.ba_] <jitterbug [dʰit.ta'.bag.gu]
 [pok.ke_] <pocket [po.ket.to]
 [ra.mu.ne_] <lemonade [re.mo.ne'.do]

[haN.ke.tʰi_]	<handkerchief	[haN.ka.tʰi:.fu]
[o:.rai_]	<all right	[o:.ru.rau.ti]
c. 탈락에 의한 어말 자음군 단순화		
[ka.raN_]	<crank	[ku.raN.ku]
[ne.ba:maiN_]	<never mind	[ne.ba:maiN.do]
[se.meN_]	<cement	[se.meN.to]
[bo:.ru_]	<board	[bo:.do]/[bo:.ru.do]
[ro:.su_]	<roast	[ro:.su.to]
d. 어말 [ŋ]이 [Ngu]이 아닌 [N]가 되는 경우		
[pu.riN]	<pudding	[pu.diN.gu]
[taN]	<tongue	[o.ku.su.taN.gu]
[sa:.fiN]	<surfing	[sa:.fiN.gu]
e. 어중음 탈락		
[he_boN]	<Hepburn	[hep.pu.ba:N]
[wai_ʃa.tʰu]	<white shirt	[ho.wai.to]
[bi_.su.te.ki]	<beefsteak	[bi:.fu.su.te:.ki]
[doN_mai]	<don't mind	[doN.to.mai.N.do]
[o:_rai]	<all right	[o:.ru.rai.to]

(Smith 2005)

(11)은 차용어가 어두, 어말, 어중 자음군 등의 위치에 따라 탈락과 삽입에 따라 가능한 발음이 두 가지가 된다. 예를 들어 (11b)의 pocket은 [pok.ke] 혹은 [po.ket.to]로 발음이 가능한데 이를 음운현상이 아니라 음운외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Smith(2005)는 이를 철자정보가 수반된 차용인지(orthographic) 혹은 오로지 음성 차용(auditory)인지로 구분되는 차용의 상황과 관련해서 설명한다. 보편적으로 모국어 음운론에서는 탈락제약을 선호하는 반면에 차용어의 경우 범어적으로 탈락전략보다는 삽입전략을 선호한다(Kenstowicz, 2003; Lee, 2003; Smith, 2006).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규칙도 문자차용과 음성차용에서 달라지는데, 전자의 경우는 정서법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후자는 단어의 철자에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하와이제도권의 일본인들의 영어 차용어에서 차용어의 보편적인 수정전략인 삽입이 아니라 탈락을 선호한 예이다. 간접차용과 문자차용이 아닌 직접차용과 음성차용에서 삽입보다는 탈락을 선호하는 예이다.

(12) 하와이 제도권의 일본인들의 영어 차용어

a. 어말 유성 폐쇄음 탈락, V_#

[iN.sai_] 'inside' cf. [iN.sai.do]

[au.sai_] 'outside' cf. [au.to.sai.do]

b. 어말 유성 폐쇄음 탈락, N_#

[ha.zu.be_] 'husband' cf. [ha.zu.ba.do]

c. 어말 무성 폐쇄음 탈락, S_#

[ne.ki.su_(i.ja)] 'next (year)' cf. [ne.ki.su.to]+*generation*

[ra.su_(i.ja)] 'last (year)' cf. [ra.su.to]

(Smith 2005)

(12a)에서 inside는 탈락전략을 사용한 [iN.sai_]와 삽입전략을 사용한 [iN.sai.do] 두 가지로 발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iN.sai.do]를 사용하지 않는 현상을 Smith(2005)는 차용어의 도입경로와 도입방법으로 설명한다. 즉 삽입현상이 범언어적으로 보편적인 차용어 수정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차용인 경우에는 삽입보다는 탈락현상을 쓰며, 반대로 정서법이 영향을 미치는 문자차용에서는 삽입현상을 쓴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3.3 외래어 표기법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원음 중심주의로 근원어의 발음에 근거한다. 차용어 연구가 근원어에서 모국어로의 사상(mapping)이라고 본다면, 차용어는 근원어의 발음에 충실해야한다는 사실과 차용어가 한국어의 음운문법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외래어 표기법은 차용어 현상과 모순되는 면이 있다. 또한 실제 대부분의 차용어에 대해 한국어 화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원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 표기를 우리말 음소 또는 한글로 대응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에서 제정한 외래어 표기법과 사람들이 사용하는 실제 발음간의 차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영화제목 Jurassic Park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제시한 외래어 용례에 따르면 주라기 공원이다. 새국어 소식에서 발췌한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 | | | |
|---------------|-----------|---------------|
| (13) only you | *온니 유 | 온리유 (2000. 5) |
| digital | *디지털, 디지틀 | 디지털 (1999. 5) |

terminal	*터미날	터미널 (＂)
color	*칼라	컬러 (＂)
honey	*하니	허니 (＂)
touch	*타치	터치 (＂)
snap	*스내프	스냅 (1999. 3)
rocket	*로케트	로켓 (＂)
Jurassic Park	*쥬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1999. 2)
supermarket	*슈퍼마켓, 슈퍼마켄 슈퍼마켓	(1998. 11)

이런 오류는 알파벳 표기를 우리말 음소 또는 한글로 대응시켜 문자 정보를 표기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간 간격에 따른 문자차용과 음성차용의 현실적 거리감을 예측할 수 있겠다. 영화예고편에서 배우를 소개하는 원어민의 청각자료와 영화 포스터의 시각 정보간의 괴리감은 특히 인명과 지명과 관련해서 두드러진 현상일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홍식(2001)은 외래어는 음성차용인 경우보다는 문자차용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외래어 표기법이 변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즉 한국어 화자는 대부분의 외래어를 신문, 전문서적을 통한 문자로 접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인명과 지명의 경우에 사전을 참고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근거 원음중심의 표기법에서 표기중심주의의 표기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3.4 미디어의 영향

앞에서 언급한 한국어의 유음 /l/은 [l]~[ll]~[ɾ]등의 발음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유변이 현상을 음운이론이나 규칙이 아닌 어감적인 요소, 대중과의 친밀감, 미학적인 요소와 같은 음운외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광고 언론 미디어 영향이다. 예를 들면 크라운 제과에서 만든 Jolly pong⁵⁾은 [dʒɔli pɔŋ] 혹은

5) 죠리퐁은 처음에는 조이퐁으로 작명이 되었던 제품이었다. 먹어서 즐겁다는 의미가 담긴 조이(JOY)와 실제로 튀겨질때 ‘퐁’하고 나는 소리를 합성하여 조이퐁이라 이름 지었던 것이다. 하지만 막상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니 이미 같은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아쉽지만 마찬가지로 즐겁다는 의미를 지닌 줄리(JOLLY)와 퐁을 합성하여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죠리퐁(JOLLYPONG)으로 급히 대처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다. 조이퐁을 대신하여 그저 비슷하게 작명한 죠리퐁이란 이름 안에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죠리퐁의 죠리(JOLLY)라는 단어에는 “엄청난, 굉장한, 훌륭한”이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애초에 지으려고 했던 조이퐁보다 더 좋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www.jollypong.com).

[dʒɔri pɔŋ]로 발음이 가능하지만, 경영주는 발음의 어감상 줄리퐁이 아닌 조리퐁을 사용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정서법에 위배되는 예이다. 즉 모음 사이에 위치한 철자 <I>은 [ɪ] 혹은 [r]로 발음하지만, <II>의 철자를 가진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ɪ]로 발음이 된다는 Oh Mira(2005)의 조사와 위배된다.

칼로리 바란스 (Calorie Balance)라는 다이어트용 간식은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 여학생들과 여성들 간에 인기가 있다.

(14)	영어	한국어
	[kʰæləri][bæləns]	[kʰallori] [pallansi] ~ [kʰallori] [paransi] [kʰarori] [pallansi] ~ [kʰarori] [paransi]

이 제품의 발음은 위에서 두 가지 면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다. 첫째 영어 [kʰæləri] 와 [bæləns]의 [æ]가 한국어에도 유사한 발음 [ɛ]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kʰallori], [kʰarori] 와 [pallansi], [paransi]의 [a]발음이 나는 것은 정서법의 영향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며, 둘째 이 제품은 (14)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음 /l/이 [ɪ]~[r]로 발음되어 적어도 네 가지의 발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을 [kʰallori] [paransi]로 사용한 것은 제품을 처음 출시했을 당시 대중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이 처음 출시된 1990년대는 현재보다는 차용어의 경로 면에 있어서 간접차용의 영향력이 잔존하며, 이는 일본식의 영어발음 [r]이 보다 친숙하게 느껴지게 한다. 즉 ‘바란스’는 한국인에게 보다 익숙한 발음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함을 제공할 수 있다.

Heo & Lee(2005)는 한 제품광고에서 [r]과 [ɪ]의 철자의 간편함과 미학적인 요소⁶⁾와 발음의 용이성과 관련된 현상을 보여준다.

(15)	Opulence	[o.pʰu.rən.sʰʌ]	*[o.pʰʲul.lən.sʰʌ]
	Planner	[pʰɹ.rɛ.nə]	*[pʰɹ.l.lɛ.nə]
	Kleenex	[kʰɹ.ri.nɛk.sʰʌ]	*[kʰɹ.li.nɛk.sʰʌ]

6) C V ㄱ ㅏ C ㄹ
V ㅓ
C ㄹ C ㄹ
수직모양의 모음(ㅏ) 음절 핵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반면 수평 모양의 모음(ㅓ) 핵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이러한 경우 모음(ㅓ)는 모음(ㅏ) 보다는 다소 넓고 안정된 모양과 느낌을 준다(Heo & Lee(2005)).

- a. [r] 오 퓨 런 스 b. * [l] 오 폴 런 스
- [o. p^hu. rən. s'ʌ]
- [o. p^hjul. lən. s'ʌ]

Opulence가 [o.p^hjul.lən.s'ʌ]가 아닌 [o.p^hu.rən.s'ʌ]로 발음되는 것은 한글 표기법에서 외견상 오피런스가 오폴런스보다 낫다는 견해에서 출발한다. 광고주는 글자모양 '폴'의 촌촌한 느낌을 주는 [l]이 아닌 '퓨'의 [r]을 선택한다.

이런 [l]과 [r]의 자유변이 현상을 위세(prestige)와 같은 화용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일본을 경유한 영어 차용어 plus는 플러스와 프라스로 발음이 가능한데, 사회적 성공을 거두고 지금 시대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중년이다. 이들에게 차용어는 대부분이 일본을 경유한 간접차용이었으며, 문자차용을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므로 플러스 보다는 프라스가 익숙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광고주는 고 소득을 지닌 소수의 기득권자들을 겨냥한 오폴런스보다는 오피런스를 선택했다.

광고와 더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유추이다. Vendelin and Peperkamp(2004)에 따르면 철자정보는 차용어에 여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비단어(non-word)가 주어질 경우 차용어 화자는 실제 사용되는 빈도수가 높은 차용어의 음운지식에 의거 판단한다. 예를 들어 tup이란 단어가 도입될 경우 차용어 화자는 cup이란 단어에 유추 [tʌp]이라고 발음한다. 예를 들어 카센타, 메가마트, 집중코스 등은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말 [r]발음 탈락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이들 단어들은 거리의 많은 간판들과, 신문 잡지등의 흔한 광고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의 차용될 많은 단어의 어말 [r]발음을 탈락시키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4. 결론

차용어는 국가들 간의 언어접촉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기존의 대부분의 영어 차용어 연구는 음운이론과 음운현상을 설명하는데 전념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정서법, 외래어 표기법, 차용어의 도입경로, 언론의 영향 등의 음운외적인 현상으로 차용어 현상을 설명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철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읽게 되어 radio[ɹɛrdio]를 *[rɛrdio]가 아닌 [radio]로 읽거

나, swordfish[sɔ:ɹdfɪʃ]의 [w]는 묵음임에도 불구하고 [siwədip^hiʃwi]로 발음하는 것은 정서법이 차용어에 미치는 영향이다. 둘째,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제정한 외래어 표기법에도 불구하고 지명, 인명, 영화포스터 등에서 쓰여 지는 표기법은 알파벳 표기를 우리말 음소로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원음주의를 지향하는 외래어 표기법과 위배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기중심주의 표기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유음 /l/은 [l]~[ll]~[r]로 발음이 가능하며, 철자 <ll>의 발음은 겹자음 [ll]로 발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Jolly pong은 발음의 어감을 위하여 [dʒɔ:ri] 조리풍으로 발음한다. 끝으로 모국어 음운론의 음운수정전략은 보편적으로 탈락을 선호하는 반면에 차용어 음운론에서는 삽입전략을 선호하지만, 철자정보가 수반된 문자차용일 경우에는 삽입전략을 음성차용인 경우는 탈락전략을 사용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http://Korean.go.kr>.
- 국립국어원. 새국어소식. <http://Korean.go.kr>.
- 외래어 표기법 용례(일반용어). 2002. 국립국어연구원.
- 이종극. (1937). *모던조선외래어사전*. 한강사.
- 곽성수. (2001). 제약중심이론에 의한 영어 차용어 분석. *경성논문집*, 22-1, 61-73.
- 구본석. (1998). *영어 차용어와 음운이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봉모. (1998).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식 외래어 분석. *부산대학교 국어문화연구소*.
- 김태미. (2002). *영어차용어의 대응이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상철, 최인철. (2006). *영한대조분석*. 한국문화사.
- 유시현. (2001). *An optimality-Theoretic Approach to Schm Constructions and English loanwords*.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홍식. (2001). 외래어 표기법에 대하여. *경상어문학집*, 23, 123-148.
- Heo, Young-Hyon & Ahrong Lee. (2005). Extraphonological regularities in the Korean adaptation of foreign liquids. *LSO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5, 80-92. Linguistics Student Organiz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Kenstowicz, Michael. (2003). The role of perception in loanword phonology.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s*, 32, 95-112.
- Iverson, Gregory K. (2005). The principling role of Korean in phonological adaptation. *The 30th Anniversary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ed. by Sang-Oak Lee. Seoul: Pagijong Press. 141-159, 2005.

- LaCharité, Darlene & Carole Paradis. (2005). Category preservation and proximity versus phonetic approximation in loanword adaptation. *Linguistic Inquiry*, 36, 223-258.
- Lee Ju Hee. (2003). *The phonology of loanwords and lexical stratification in Korean : with special reference to English loanwords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ssex: Department of Language and Linguistics.
- Oh Mira. (2005). Phonetic and spelling information in loan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0(2), 347-368.
- Peperkamp, Sharon & Emmanuel Dupoux. (2003). Reinterpreting loanword adaptations: the role of perception. International Congress of Phonetic Sciences 15. 367-370. *Linguistics* 5. 80-92.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Peperkamp, Sharon. (2005). A psycholinguistic theory of loanword adaptations. In Proceedings of the 30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 Silverman, Daniel. (1992). Multiple scansions in loanword phonology: Evidence from Cantonese. *Phonology*, 9, 289-328.
- Smith, Jennifer L. (2005). Loan phonology is not all perception: evidence from Japanese loan doublets. *Japanese/Korean Linguistics 14*, (eds.) Timothy J. Vance & Kimberly A. Jones. 63-74. Palo Alto: CSLI.
- Smith, Jennifer L. (2006). Source similarity in loanword adaptation: Correspondence Theory and the posited source-language representation. In Steve Parker, ed., *Phonological Argumentation: Essays on Evidence and Motivation*. London: Equinox.
- Vendelin, Inga & Sharon Peperkamp. (2004). Evidence for phonetic adaptation of loanwords: an experimental study. *Actes des Journées d'Etudes Linguistiques*, 127-131.
- Vendelin, Inga & Sharon Peperkamp. (2005). The influence of orthography on loanword adaptations. *Lingua*, 116. 996-1007.
- Yip, Moira. (1993). Cantonese loanword phonology and Optimality Theory.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2(3), 261-291.

이상도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010-4564-2041

leesd@pusan.ac.kr

이영순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018-565-8537
ellenna27@yahoo.co.kr

논문접수일자: 2007. 6. 10
게재확정일자: 2007. 7. 20